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특별인터뷰

인터뷰 = 조경완 편집부국장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허탈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체육계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 체육계의 수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한국 체육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에서 유치 계획을 밝힌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유치전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일보는 김정길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평창 실패에 얽힌 뒷얘기, 광주체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한체육회관 13층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의 집무실에서 1시간동안 진행됐다.

“광주체전, 문화·예술행사와 접목... 성공개최 기대”

-과테말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한 날 숙소로 돌아와 평평 울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원래 잘 우시는 편입니까.

▲내 자신이 선거에서 떨어진 경험이 많아 답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나라가 떨어지니까 정말 슬프더군요. 현장에서 잘 참았는데 저녁에 숙소에서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우연히 본 모양입니다. 평창 때문에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았으니, 허탈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평창 유치를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봐 IOC위원 후보자격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마 내가 IOC위원이 됐으면, 이번 평창 탈락의 모든 비난은 나에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IOC는 한 국가에 두 개의 해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분명합니다. IOC 위

원장의 동계올림픽 유치전에도 물론 좋지 않을 듯 했고요. 결국 박 시장에게 또 한번 양해를 구했고, 201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권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광주 유치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2011년 중국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게 최대 걸림돌입니다. 동아시아권에서 연속 같은 대회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주만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부경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유치 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2010년 열리는 제1회 청소년올림픽입니다. 1회 대회인 만큼 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만간 박광태 광주시장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어 볼 계획입니다.

-IOC가 2010년에 새로 창설한다는 청소년



- ◇ 김정길 회장 주요 약력
- ▲1945년 경남 거제
 - ▲동아고·부산대 정의과졸. 부산대 총학생회장
 - ▲1985~1988 제12대 국회의원
 - ▲1988~1991 제13대 국회의원
 - ▲1998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 ▲1999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2004~2005.2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 ▲2004.2 ~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 ▲2005.2 ~ 제35대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적 계획을 위해 다각도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성공한다면 다음해 전남 전국체전도 그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체육계 자정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공교롭게 몇달 전 전남에서

는 도민체전 도중 체육회 간부끼리 살인극이 벌어져 체육인들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자정운동이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체육계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국제적으론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체육인들이 입시부정, 금품수수, 성폭행, 부정 심판 등의 비리로 체육계의 물의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이미지나 내부 결속 등을 이유로 자정 운동을 미뤄 왔는데, 동계 올림픽 유치전도 끝났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만약 내가 대한체육회장직 연임을 노린다면 경기단체를 눈치보느라 자정은 물건너 갑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직의 불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자정운동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내가 회장을 맡고 있는 태권

합니다. 회장께서 2009년 체육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럼 다시 '본업'인 정치로 복귀한다는 뜻입니까.

▲1990년 3당합당 거부 당시 김영삼 총재와는 같은 거제 장목 출신으로 정치인들 중 유일한 초등학교 선배배이고, 집안끼리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3당합당에 합류하지 않고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고향을 비롯해 부산지역에선 배신자로 몰렸지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5차례나 연속 낙선했습니다(웃음). 힘든 상황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그분의 정치 철학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라도와 인연도 너무 많습니다. 아내도 전남 고향 출신입니다. 요즘들어 정치인으로 복귀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따져 보면 '정치 8단'은 되실 겁니다. 요

“부지 제공하면 전남에 동계훈련장 건립 대선주자들 명분없는 이합집산 딱할 뿐”

“2013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 적극 지원 2010 제1회 청소년올림픽도 유치 해볼만”

원은 내 개인의 영예지만,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의 영예지요. 그래서 포기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도전할 생각도 없습니다.

-광주시는 동아시아 대회 유치계획을 포기한 대신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지요. 또 회장께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는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빛을 두 번 졌습니다. 광주가 2014년 아시안게임 후보 도시가 되길 원했을 때 내가 막았습니다. 당시엔 정부나 체육회의 분위기가 새로 영종도 공항을 오픈한 인천에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에게 양보를 권유했고 대신 동아시아 대회에 도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아시안게임(인천)과 세계육상대회(대구) 등이 모두 유치되면서 동아시아대회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치한다면 국제스포츠계에서 '한국 싸슬이'의 비난을 받게 될 상황으로 몰려 버린거죠.

년 올림픽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규모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규모는 청소년 올림픽이 더 작지만 첫 대회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선수는 결국 미래의 스포츠를 이끌어갈 재목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매력적인 대회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기반시설인데, 유치만 한다면 예상외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광주시는 올해, 전남도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전국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전남의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조언하실 말이 있다면.

▲이번 광주체전은 한국 아마스포츠의 부흥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개최지에서 전국체전의 불이 쏠려야 합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전국체전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성공

도협회부터 자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태권도협회 전무가 사표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정작업은 꾸준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남은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음식으로 각종 체육팀의 동계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가적 체육역량 극대화를 위해 전남에 제2 선수촌을 세운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주요 선진국은 각 주별로 선수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에 있는 고지대 선수촌 둘 뿐입니다. 현재 동계 훈련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 또는 전남에 동계훈련장 건립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부지 제공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남지역에 동계훈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2년 대선때 광주염주체육관에서 김대중 후보 지원 연설을 하던 모습이 생생

즘 대선정국을 보시는 소화가 어떠신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무슨 원칙도 명분도 없이 이합집산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딱합니다. 국민에게 주는 감동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약점이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범여권을 보면 지지율이 모두 바닥인데, 특정 후보의 현재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추종하는건 곤란합니다. 지지할 만한 명분도 있어야하고 10년 가까이 집권해온 민주개혁세력으로서의 자존심도 지켜야하지 않겠어요?

-실제 범 여권 일각에서는 전략적 대안으로 PK 출신인 회장님을 거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웃으며)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정리=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소화가 안될 때는 걸어보세요!

소화수

소화가 안될 때는 걸어보세요!

소화수